

독도주인들이 독도를 버리고 있다. 맞으면 ○ 틀리면 x 답을 생각하고 3면에 독도소식지 27호를 내면서

독도소식지는 일본의 독도침략을 막으려는 일념에서
피 같은 돈으로 만든 것입니다. 보신 후 버리지 마시고
다른 분이 보시도록 전달합시다. 독도를 우리 모두 목숨
걸고 지켜야합니다. 독도소식지는 뜻있는 분들의 후원
금과 회원들의 회비로 만들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창간
호부터 전부 보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독도 관련 성명서

일본은 우리나라 독도 침탈을 중단하고 과거를
인정하고 사죄하라. 일본이 계속 독도를 침탈 하려
거든 태정관문서와 임자평지도, 일본해군성지도,
일본에서 제외한 영토라는 문서의 사유를 밝혀라.
일본 정치인들과 극우파들은 일본 땅 이라고 주장
만 하지 말고 우리민간단체와 역사자료 대조하며
몇 날이라도 좋으니 묻고 답하고 누구 땅인지? 심
도 있게 토론하여 확실히 가리자. 장소는 한국이나
일본 어디라도 좋다.

우리정부는 일본과 외교문제를 생각하는 것 보
다 영토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직시하고 일
본눈치를 보지 말고 일본이 독도를 조선 땅으로 인
정한 문서를 일일이 반박하고 다시는 독도영유권
주장을 못 하게 하라, 그리고 신 한,일 어업협정을
과기하고 배타적 경제수역 주권을 찾아라. 독도연
구와 독도유인도화, 관광지를 개발하여 독도주민
이 살기 좋도록 만들어라. 그리고 국제적 홍보를
게을리 하지 말라,

우리 국민들과 북한 동포들 그리고 해외 동포들
은 일본의 주장에 우리정부가 밀려서 독도의 배타
적 경제수역을 일본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세
계 각국에서는 바다를 일본해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시 하고 있는 것은 국제여론상 우리가 일본에게
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독도를 가지고 있다고
방심하지 말고 스스로 독도는 한국 땅 자료들을 제
3국인들에게 알리며 일본의 영토 침탈 행위를 알
리자.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공동으로 된 것은
마당이 공동으로 된 것과 무엇이 다른가? 세계 각
국이 사용하는 지도가 일본해와 다케시마로 표시
되는 것은 서류상 일본해와 다케시마가 된 것과 무
엇이 다른가? 영토를 못 지킨 부끄러운 조상이 되
지 말자!

2017.4.5.

독도사수연합회 일동

후원금 주신 분

양지명	부산시시 사하구 하단동	17,000
박현석	서울 강서구 목촌 성원 A	15,000
김금자	부산시 진구연지동 경동A	5,000
최선정	부산시 연제구연산2동	5,000
박행제	부산시 해운대구우3동아이파크	33,000
곽용수	아마추어무선사ds5iwy	30,000

독도사수연합회 “일본 ‘다케시마의 날’ 조례 폐지하라”

송고시간 | 2017/02/22 15:34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독도사수연합회와
독도우리회 등은 22일 부산 동구 초량동 정발 장군 동
상 앞에서 일본의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행사를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열
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50여명이 참석한 행사는 일
본 규탄사, 독도시 낭송, 일본 독도 침탈규탄문 낭독,
구호 제창, 만세 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발언자로 나
선 서봉수 삼일동지회 회장은 “독도는 신라 시대 때



22일 부산 정발장군 동상 앞에서 독도사수연합회원들이
일본 규탄 집회를 열고 있다. [김선호 기자]

〈안태봉 칼럼〉 독도를 생각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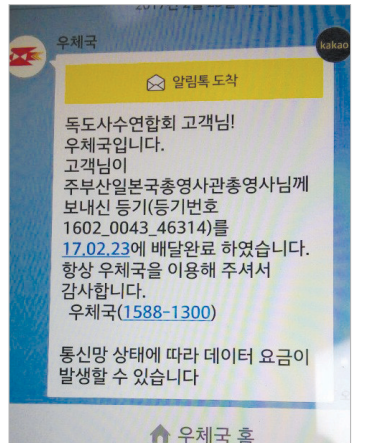


안태봉회장

박대통령이 탄핵소추를 받아
꼼짝달싹 못하고 있을 때 일본의
외무성 장관이 독도는 일본 영토
라며 기염을 토해 내었고, 그 앞
전에는 총리가 독도는 자국의 땅
이라고 의회에서 말도 아닌 말을
했고, 두어달 전에는 초등학교 중
학교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땅이
라는 것을 가르치라고 지시를 내
렸다. 무슨 꿈꿨이속이 있길래 다케시마 즉 독도를 일
본 것이라 우기는 것인지? 나름대로 조사도 하고 문헌
을 찾아보았는데, 아뿔싸 이게 날벼락도 유분수지 김
대중 정권 때 배타적 경제수역을 정할 때 70%가 일본
으로 날아가버렸다는 점이다. 그래서 왜놈들이 큰소
리 치고 독도는 엄연히 한국 고유의 영토임에도 일본
의 각료들이 헛소리를 하고 있다. 우리가 대응할 가치
가 없는 것이 아니고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촛불이나
태극기를 들지 말고 일본의 야욕에 촛불을 들고 태극
기를 들고 총궐기해야 된다. 지난 2월 22일 비가 오는
가운데 독도사수연합회 및 한국독도문학작가협회를
비롯한 20여 독도단체 CEO와 회원들이 동참하여 부
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정발장군 동상 앞에서 일본 시
마네현이 실시하는 다케시마의 날을 규탄하는 행사를
가졌다. 바로 그 옆에는 치욕적으로 당한 우리들의 누
님 어머님들이 왜놈의 성노리개로 전락했던 위안부
소녀상이 건립되어 있고 그 앞에는 일본 영사관이 있
다. 이 날 혹시라도 있을 폭동을 예상하여 전경들이
인간띠를 하고 있었다. 겨울비는 더 세차게 내리는 가
운데 300여 명이 모인 광장에는 마치 임진왜란 당시
혁혁한 공을 세운 흑의장군 정발 다대표참사님께서
굽어보는 것 같았다. 아무리 독도는 우리땅! 독도는
한국땅이라 외쳐도 마치 이불 속에서 만세를 부르는
격이다. 이것 또한 냄비근성인지 하루 이틀 지나면 기

현재독도와 울릉도인 우산국을 신라에 복속시킨 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영토”라며 “일본 정부는 독도
침탈 야욕을 버려야 한다”고 밝혔다. 안용복 장군기념
사업회 안성관 회장은 “일본 정부가 인가한 중등학교
사회 교과서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문구를 삭
제하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 즉각 사죄해야 한다”고 말
했다. 참석자들은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는 시마네
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와 행사를 폐지하고 우리
나라의 독도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
다. 결의대회를 마친 이상훈 독도사수연합회 회장은
‘독도는 한국 땅, 일본은 침탈하지 마라’는 제목의 향
의 서한문을 부산
일본영사관에 우편
으로 전달할 예정이
다. 일본 시마네 현
은 2005년시마네 현
조례 제36호를 제정
해 2월 22일을 ‘다
케시마의 날’로 지
정한 뒤 2006년부터
매년 기념행사를 개
최하고 있다.

wink@yna.co.kr



역의 저편에서 자리잡고 있으니 그게 더 낭패다. 이제
는 행동으로 보여 줄 때가 되었다. 앞으로 정부는 배
타적 경제수역을 재조정해야 됴 동시에 이를 파기
해야만 비로소 독도는 완전하게 우리 영토가 되는 것
이다. 위정자 한 명이 잘못 판단하여 이렇게 된 이상
우리 민초들이 나서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 일본
다케시마의 날에는 일본 각료(우리나라 차관급)가 급
파되어 마치 일본정부 행사 같았음은 아무도 부인치
못한다. 다케시마를 일본말로 하면 즉 죽도(竹島)이
다. 독도 그 민 땅에 무슨 대나무가 있는가. 무릇 그 지
방의 이름을 붙일 때 감이 많이 나면 감나무실, 밤이
많이 나면 밤나무골이라 부르는데 대나무 한 그루도
없는 섬이 죽도라니 참말로 복장이 터져 죽을 일이다.
다케시마를 반대로 읽으면 ‘마시케다’이다. 왜놈들이
처음부터 독도를 유린하려고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닌
지? 그런데 고등학교 사회와 교과서 80%가 독도는 자
국땅인데 한국이 무단으로 점령하고 있단다. 이게 말
이 되는 소리를 시버려야지 얼토당토 않게 지끼라 우
기면 저저기 대는 긴강. 너무 한심하기 그지 없다. 부
산 영도나 용두산공원에서 맑은 날이면 눈에 들어오
는 대마도가 있다. 어디로 보나 한국땅인데 왜 늦추고
있는지 모르겠다. 마산시의회에서 대마도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는 그냥 흐지부지하게 지낸다. 그래서 왜
놈들이 우리를 부를 때 조선엽전이라 한다. 엽전은 가
만히 두면 녹이 쓴다. 시시때때로 흔들어야 녹이 슬지
않는다. 그래서 조선징이란 말이 생겨났고, 조선 사람
을 혼쭐나게 다뤄야 일을 할 수 있다고까지 했다. 아
닌 것을 가지고 이리저리 짜맞추어서 자기 것이라고
망언과 망발을 해도 300여 국회의원은 무얼하고 있는
가. 대통령 선거에 나온 유력후보자님! 우리 독도가
참말로 왜놈땅인교? 그것부터 정리해 놓고 출마하
이 소 마.(한국독도문학작가협회 회장 안태봉)



일본 독도강제침탈 규탄대회 및 독도사수결의대회

▶ 일시 : 2017년 2월 22일(수) 오후 2시

▶ 장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정발장군동상 앞

주 관 : 독도사수연합회, 독도우리회

공동주최 : 한국독도문화작가협회,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 부산본부, (GPF)부산지회, 부산민족학교부설독도학당, 사)안용복장군기념사업회, 사)대한민국도덕성국민운동본부, 사)삼일동지회, GPF자문회의, 대마도찾기국민연대, 사)환경21연대, 사)대한민국독도사랑세계연대, 시를 짓는 사람들의 모임, 부산사투리보존협회, 참관역사신문경남지국, 독도사랑문학회, 한국자유총연맹 부산광역시지부



일본 규탄하는 독도사수연합회장



↑ 사진 4장은 필리핀에서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One Korea 행사에서 기념
↓ 사진 2장은 같은 행사에 각국 전문가들이 한국통일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22일 부산 동구 일본영사관 인근 정발 장군 동상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상훈 독도사수연합회 회장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2017.2.22 wink@yna.co.kr(끝)

저작권자 (C) 연합뉴스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2017-02-22 15:41]



독도불법편입 강치열종사
세미나 참석 2017.2.16 YWCA

독도 연구 · 수호활동 기관단체 발표 교류대회 - 발표문



독도 이상훈 회장

독도 지키려면 국제적 홍보와실효 지배 강화운동을 하자

2012년8월4일 독도사수연합회장

독도사수를 위하여 이곳에 오신 독도운동가 여러분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 행사를 주최해주신 (사)한국이사부학회, 강원 도민일보, 삼척시에 감사드립니다. 또 저명하신 독도 운동가 여러분 앞에 발표를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1. 독도 현실은?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은 일본과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었으니 절반의 주권입니다. 외교통상부 조사에 따르면 현재 각국 세계지도에 독도를 한국 영토로 표기하고 있는 사례는 전체 3천380건 중 49건(1.5%)에 불과했다.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표기한 92건(2.8%)까지 합해도 전체 5%에도 미치지 못한다. 나머지 95%는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일본 영토로 인식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게 독도의 현실입니다. ([사설] “독도, 일본 영토 아니다” 말한 日 교원노조) 이 현실은 독도 70% 빼앗긴 것으로 봅니다.

2. 독도주인들은?

독도주인은 우리 국민과 우리 민족들이다. 주인이 자기 땅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독도주인들이 독도를 빼앗기면 안된다는 마음은 있지만 적극적으로 지키려고 행동하는 사람은 아주 드물다. 제가 부산에서 택시운전을 하며 “독도 지키기 위한 청원서” 서명운동을 택시 승객에게 하는데 서명을 거부하는 사람도 20% 정도 된다. 왜 서명을 거부 할까? 아마도 개인정보 노출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안쓰면 개인정보 노출이 아닌데 무지해서 서명을 못합니다. 또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주장해도 정부가 대처를 제대로 못하니 이제는 독도가 일본 땅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 숫자가 늘어납니다.

3. 서명운동 하면 독도가 지켜지나?

아니요. 우리가 서명운동을 안해도 정부가 정책을 고치면 독도는 지켜진다고 봅니다. 독도정책을 고치게 하는 수단으로 서명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라를 위하여 독도지킴이가 되었습니다.” 서명 받으면 독도 지켜지나? “독도수호참여 100만인 서명운동” 한 줄 쓰고 서명 받으면 독도 지켜지나? 아니요 안됩니다.

4. 정부는 일본의 눈치를 보면 안 된다.

북한이 남북한 한반도기에 울릉도 독도를 포함하고 해도 남한측이 거부했고, 국토해양부가 독도방과제 만들려고 하는데 외교통상부가 일본과 관계를 생각해서 못하게 했고, 우정사업본부 독도사진을 우편엽서에 못올린다고 한 일도 있다. 대한체육회에서는 한반도기에 북한이 울릉도 독도를 표시하자는 것을 하지 말자고 한 일도 있다. 즉 정부는 일본과 관계를 생각해서 독도 개발을 못한다.

5. 시민단체들이 정부에 독도정책 건의를 하는가?

유명한 단체도, 애국단체라고 하면서도 독도를 지키는 주장이나 독도문제로 일본을 규탄하는 행동은 하면서도 정부의 정책 변경은 요구하며 관찰시키려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정부가 일본의 눈치를 보는 것을 막으려 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유명한 단체들이 정부의 눈치를 보는 건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독도단체들도 독도에 사람이 사는 마을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독도주인이 독도를 버리고 있다

일본이 독도를 뺏으려는 것을 알면서 독도에 무관심은 독도를 버리는 것이다. 지금까지 몰랐고 지금 알았다면 이제부터 독도 지키기 운동을 하십시오. 할 줄 모른다면 회원이 되시고 시간이 없다면 회비만 내든지 후원금을 내시면 독도운동에 도움이 됩니다. 전화나 문자를 주시면 활동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회비, 후원, 활동 전부 다 하시는 분은 더 큰 독도 지킴이가 됩니다.

010-6504-6510. ds5ean@naver.com

월드컵 축구나 박근혜 탄핵처럼 2백만명 모이면 서명용지 내용이 이루어진다. 2백만명 모이자. 2천만명이 서명하면 정부가 안 할 수 없다. 내가 13만명 받았다. 나와 같은 사람 200명이면 독도정책은 바꿀 수 있다. 서명운동 하세요. <이상훈>

서명운동은 하지 않는다. 정부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지 모르겠습니다.

6. 독도사수연합회는 주장한다.

아래 청원서 내용을 정부가 하면 독도 지켜진다.

7. 서명내용에 대한 이유는 독도연구를 많이 하면 논리적으로 일본을 이긴다. 자유입도 주거자유하면 국제법으로 해도 유리하다고 봅니다. 관광지 개발하면 독도 주민들이 장사해서 벌어먹고 살거리가 되고 국제사회에 홍보하여 우리 땅으로 인식시키면 유리하다고 봅니다.

독도의용수비대가 지키지 않았다면 옛날에 일본 땅이 되었을 것이다. 세계 각국에 지킨 공을 알려야 합니다. 신 한.일 어업협정은 절반의 주권이다. 절반의 주권을 찾아야 독도권리를 모두 행사 하는 것입니다.

8. 독도시민단체들이 할 일.

독도를 지키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독도가 지켜질까를 생각하고 정부가 잘하면 독도가 지킬 수 있다면 열성 다해서 정부가 잘못하는 부분을 고치게 만들면 독도는 지켜집니다.

독도를 지키기 위한 청원서

(아래 서명인은 아래 사항을 대통령과 국회의장께 청원 합니다.)

1. 독도박물관을 국립박물관으로 승격하여 독도연구비 투자를 많이 하십시오.
2. 우리 땅 독도의 자유로운 입도 보장과 독도의 주거자유를 보장해 주십시오.
3. 독도의 관광지개발을 통하여 관광수입과 함께 국내·외에 홍보해 주십시오.
4. 독도를 지킨 독도 의용수비대를 국가최고 유공자로 모시고 독도수비의 공을 기려주십시오.
5. 잘못 맺어진 신 한·일 어업협정을 파기하여 배타적경제수역주권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순번	성명	주소	서명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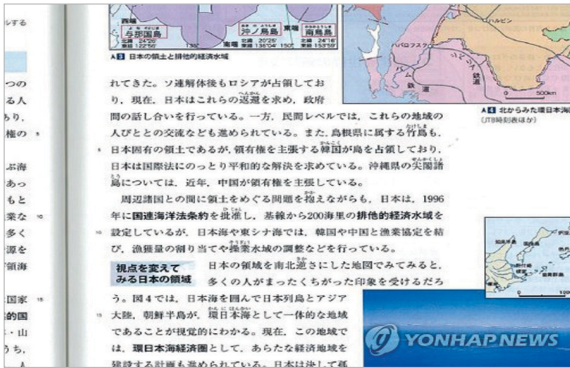
독도사수연합회 http://dokdomk.com (서명받은분 이름)
네이버 독도사수대 http://cafe.naver.com/docdoinkorea
보낼 곳 부산광역시 동래구 중앙대로1301번길12. A동203호(온전동부원A) 독도이상훈 우편 47825
서명받은분 명단은 박물관에 영구보존되고 100명이상 서명받은 분은 증서를 드립니다.

정치인은 일본눈치를 본다?



고교 교과서 검정...세계사 제외 사회과 100% 일본영유권 명기(독도침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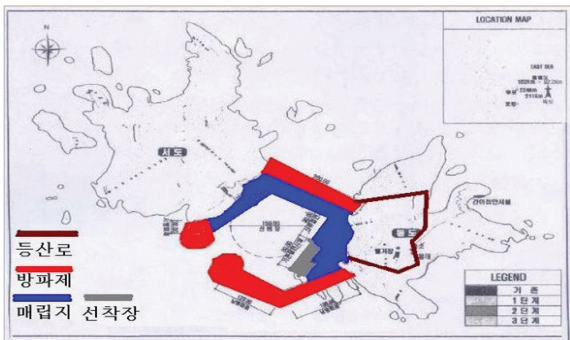
입력 : 2017.03.24 15:33:55 수정 : 2017.03.24 23:24:24



일본이 내년부터 사용할 고교 2학년용 사회과 교과서의 80%가 독도가 일본 땅이거나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4일 오후 교과용도서검정심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교과서 검정 결과를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부산 소녀상 설치 이후 일본이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를 본국으로 일시 귀국시키며 교착상태에 빠진 한일 관계가 한층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문부과학성의 발표에 따르면 이날 검증을 통과한 24종의 고교 사회과 교과서 가운데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것은 79.2%인 19종에 달한다. 지리(3종), 일본사(8종), 정치경제(7종), 현대사회(1종)는

전 교과서에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등의 영유권 주장이 실렸다. 세계사(5종)의 경우 독도영유권 주장은 담기지 않았다. 결국 세계사를 제외할 경우 검정 대상 사회과 교과서 모두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들어간 것이다. 지난해 검정을 통과한 고교 1학년용 사회과 교과서의 77%에서도 이런 내용이 들어감에 따라 초중학교는 물론 사실상 모든 고교에서도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가르치게 됐다. 지난해와 올해 검정을 통과한 고교 사회과교과서를 합치면 총 59종 가운데 46종(78%)에서 일본의 독도영유권이 들어갔다. 이는 4년전인 2012~2013년 검정을 통과한 고교 사회과교과서 60종 가운데 61.7%인 37종에만 이런 내용이 들어간 데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경우 21종(사회과 중 지리 제외) 가운데 13종에서 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 일본사 8종 가운데 7종, 세계사 5종 가운데 2종, 정치경제 7종 가운데 4종이다. 이번 검정의 가장 큰 특징은 2015년 12월 한일 간 위안부 합의가 7종의 교과서에 처음으로 반영됐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4종은 한일 합의에 의해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점에 중점을 둔 것으로 파악돼, 역사적 교훈과 인권 차원의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 모두 해결됐다는 오해를 초래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독도 개발 안



독도는 동도와 서도로 큰 섬이 두 개다. 두 섬의 거리는 약 170m이다. 붉은 것을 방파제로 하고 회색은 선착장이다. 푸른 부분은 매립을 해서 상업지를 만들어 독도주민들이 장사를 해서 돈을 벌면서 살게 하자는 개발안이다. 지금은 독도에 체류시간이 30분이다. 4~5시간 체류를 할 수 있게 하면 독도 주민들이 장사를 할 수 있다. 독도선착장을 만드신 강향희 회장의 방파제 개발안을 독도 이상훈 보강해서 색칠을 한 것이다.

1. 방파제를 만들면 파도가 있어도 접안 된다.
2. 등산로를 만들어 동도정상에 관광객이 올라갈 수 있게 하고 내려오는 길은 북쪽 방파제 쪽에 별도로 만든다.
3. 독도를 어업전진기지 등으로 사용해도 좋다.
4. 서도에 10가구 동도에 10가구 정도 살게 한다.
5. 학교가 없으니 50~60대가 살면 된다.
6. 서도 어민숙소까지 개방하고 나머지는 생태계 보존한다.
7. 일본은 국제재판으로 독도를 뺏으려 하니 개발하여 사람이 살면 국제 법으로 유리하다.

나라가 힘이 있고 정부가 잘 하면 국민들이 나설 필요가 없다. 우리 모두 노력하자!



독도소식지 27호의 편집을 끝내면서

본회는 독도를 지키려고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힘이 모자랍니다. 사이트에 오셔서 인터넷 활동을 해 주시거나 회비를 내시거나 서명운동을 해주시는 것 힘이 됩니다. 한 가지라도 하시면 애국입니다. 일본이 뺏으려 하는 것을 알면서 아무것도 안하는 것은 독도를 버리는 것. 마음으로는 못 지킨다. 독도 소식지는 인터넷으로 전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독도소식지를 보신 후 버리지 마시고 다른 분이 보시도록 다른 분께 전해 주십시오. 편집을 도와주신 황성일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독도 이상훈 010-6504-6510
ds5ean@naver.com
■ 후원할실분 법민통장우체국
601229-01-002084 독도사수연합회

독도사수연합회 회원가입원서

<http://dokdomk.com> (접수번호 : 독사연)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이 메 일		
연락처	자택전화	사진
	휴대전화	
주 소		

본인은 독도사수연합회 회원으로 나라를 위하여 독도를 지키는데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가입원서를 제출합니다.

201 년 월 일

성명 : (서명)

독도사수연합회 귀하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로263 (괴정동) 우편번호 : 49384
TEL : 051-466-8761, FAX : 051-206-8761, HP : 010-6504-6510, ds5ean@naver.com
법민통장우체국 601229-01-002084 예금주 : 독도사수연합회